

보낸 사람: sungwon.chae
보낸 날짜: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9:00
받는 사람: jujung (Jae-Uk Jung)
제목: [AI/IT SC 채성원 컨] 사무실 내 직무 피봇팅 관련 문의

메시지 플래그: 추가 작업
플래그 상태: 있음

정재익 변리사님께,

근래 유선상으로 문의 주셨던 “내부 Legal AI 개발과 컨설팅(e.g., AI 거버넌스) 업무 중 어떤 커리어 방향을 원하는지”에 관해 고민이 깊어졌고, (카카오톡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공유드렸지만) 제 생각을 정리해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지난 약 1년 반 동안 사무실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사무실의 전사적 AI 역량 제고와 AI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고민해왔습니다. 다만 정작 사무실 내에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하는지를 글로 정리해본 적은 없었는데, 지난주 건강 문제로 재택근무를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번 기회에 제가 수행하고 싶은 역할과 강점을 보다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접했던 업무들 중에서 집중도가 높았고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업무들을 되짚어보니, **제가 가장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역량을 발휘한 부분은** 기술을 사무실 내부의 Legal 언어로 해석하고 구조화하는 역할, 또는 (외부 프로젝트에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수행하게 되는 그와 유사한 역할, 즉 **변리사님께서 늘 강조해주셨던 ‘번역가’의 역할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역할을 수행할 때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느꼈고, 실제로 사무실에도 가장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기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할은 제가 컨설팅그룹/AI센터 등의 소속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TMT 소속의 연구원 등으로 있을 때 가장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전달드립니다.**

물론 변리사님께서 “그렇다면 이러한 번역가 역할은 Legal AI 구축 과정에서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Legal AI 구축과 관련해서는, 제가 가진 능력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 상대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사무실에 기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되짚어보면 제가 실제로 가장 즐겁고 의미 있게 느꼈던 순간들은 현장의 주니어 변호사님들과 함께 실무를 뛰며 쟁점을 해결하고, 기술적 내용을 우리 사무실의 언어로 정리하는 번역가 역할을 수행할 때였다는 점을 확실히 체감했습니다.

그런 경험은 특히 노태영 변호사님께서 관할하시는 TMT 리서치 IOC 정기 참여 및 리서치 업무, 혹은 AI 거버넌스 프로젝트에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고, 제가 가진 역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되는 지점도 바로 이러한 협업 구조 안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올해 초 네이버 사의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침해·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수임 제안 당시, 수임 제안서 단계에서 기술적 쟁점을 가장 먼저 구조화하여 표 형태의 구조화된 중간 산출물을 작성해 메일 체인에 회람드리며, 당시 설날에도 출근하여 일했음에도 진심으로 즐겁고 보람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내 생태

계상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아직 많지 않다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그 경험 자체는 제게 굉장히 큰 의미였고, 향후 이런 업무에 투입된다면 참으로 기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술과 법률의 대응 구조를 단계별로 연결하며 변호사님들과 함께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기술적 이해가 법적 판단과 대응 논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순간에 큰 보람을 느꼈고, 제가 가진 공학적 배경이 가장 잘 발휘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사실 소송뿐 아니라 TMT(FM·거버넌스) 분과 리서치에서도 거의 동일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TMT 간사이신 노태영 변호사님 아래에서 FM·거버넌스 분과 Weekly IOC에 참여하며 공학 기반 리서치 메모를 회람드리고 함께 논의하며 저도 많이 배웠던(AI 감리를 위한 사무실 차별화 역량 탑재 아이디어 등) 과정은, 되짚어보면 제게는 입사 후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최근에는

- 한국회계기준원 AI 분석 지원(빌코드: 한국회계기준원/Sustainability),
- 크래프톤 약관법 검토 지원(빌코드: Krafton/AI Solution),

등의 TMT 분야 지원 업무를 노태영 변호사님께서 요청해주셔서 수행하며, 기술 → 규범 → 정책으로 구조화하거나, 반대로 정책 → 규범 → 기술로 맵핑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무실 내 'AI 지원이 요구되는 빈발 업무들'이 상당히 많고 - 이는 Legal AI 구축과는 독립적으로 계속 발생할 니즈라는 점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는 제가 가진 역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업무에 대해 사무실 내 니즈 대비 적극적으로 지원할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기에, 이러한 역할로 제 사무실 내 업무를 더 주요하게/집중적으로 pivoting 하고 싶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한편 내부 Legal AI 개발 업무는 프로젝트 자체는 물론 의미가 크고, 입사 초기에는 리걸테크에 큰 열망이 있었지만 - 현재 및 향후 약 2년 동안, 사실 모델 학습 및 고도화 등을 수행하기보다는 데이터·파이프라인 중심 실무의 비중이 높아 제가 지닌/상대적으로 고유한 강점이 덜 발휘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파운데이션 모델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면, 특정 도메인 특화 기술 역량이 장기적으로 범용성 있는 asset이 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실무 역량과 경험을 배우는 장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러한 기술을 단순히 구현하는 역할보다, 기술을 해석해 규범의 언어로 정리하고 이를 연결해내는 업무를 보조/지원/선도하는 역할이 제게 훨씬 잘 맞고, 실제 현장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커리어 경로 측면에서도 더 큰 기여와 의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 TMT 분과에서의 리서치 및 사무실 내부의 AI 역량이 요구되는 업무 참여,

2) AI 거버넌스 컨설팅 실무 병행(사무실 입장에서 결국 기업으로서 billable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 역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태영 변호사님 라인에서 TMT 소속으로 리서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시에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가장 value를 낼 수 있는 영역이라는 확신이 있으며, AI 거버넌스 업무 역시 예상 이상으로 제 강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라는 판단을 지금은 분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근 FM 분과에 염상화 연구원님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염 연구원님이 어떤 조직 체계에 계신지는 정확히 모르나, 저 역시 그러한 형태로 사무실에 남아 기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함(예: 컨설턴트 → 연구원) 변경이나 소속 전환(컨설팅그룹·AI센터 → TMT 등)도 무방하며, 이와 같이 직무를 변환해 TMT 분야의 빈발 리서치 및 기술 검토 업무를 주요하게 수행하고, 동시에 필요 시 AI 거버넌스 컨설팅 업무에도 함께 참여하는 방향이 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염상화 연구원님 kcpí 조회 내역 공유드립니다)

성명	염상화
직급	연구원
근무위치	크레센도 9F
사무실번호	(02) 6488-7042
내선번호	7042

제가 사무실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도, 지난 1년 4개월을 버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변리사님께서 처음부터 챙겨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신 덕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민도 변리사님께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고민은 센터 내부 실무진 누구에게도 공유한 적이 없고, 마치 다른 회사였다면 내부 팀 이동을 고려해보는 정도의 결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리사님과 저 둘만의 비밀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실 때 의견이나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황실에 혼자 앉아 글을 쓰다 보니 길이가 다소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방향 고민을 함께 해주시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채성원 올림 | Sungwon Chae

AI&IT Sys. Center (JS2), #2628